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권력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정부권위(government authority)와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 둘 중 어디에 보다 의존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부권위에 입각한 정책이란, 예를 들어 공립학교제도의 의무교육기간 규정이나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사람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수행을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면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상품과 서비스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편중된다. **공공서비스**란 국가권력이 공공의 복지를 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과 기본권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치안, 도로 및 항만, 교통, 물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보육,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도, 정부는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해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외감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 등과 관련 없이 ‘무조건’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기초소득, 국민보조금, 시민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져 왔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은 “정치단위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 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정부가 지급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재원이 공적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에게의 의미는 기본소득이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2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11,110명 중 사망자는 263명으로 치명률이 2.37% 수준이다. 감염병 대응의 일차 방어선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 **공공보건의료** 체계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적 개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3개로 꼴지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율도 5.7%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보건의료가 사회안정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 확대 양성, 공중보건 예산 확충 등 제도정비와 재정투자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커뮤니티의 보건복지인프라를 활용한 장기간에 걸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뒷면에 계속)

(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안 21.6%p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 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2만 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8만 원(68.7%)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정부가 임금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최근 다문화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활발한 국제 교류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과 농촌 총각들과 외국 여성의 혼인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Kosian)**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우리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 다인종·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피부 색깔, 얼굴 모양, 가치관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및 의료접근성 강화와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혼혈인이나 외국인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국가 구성원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형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바)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성이 정의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상태, 즉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 즉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될 수 있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불평등은 ㉞ **부정의**가 된다.

1-1. 제시문 (가)의 공공서비스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 기본소득과 제시문 (다)의 ㉡ 공공보건의료의 차이가 갖는 성격을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와 (바)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소상공인, (마)의 코시안에게 발생하는 ㉞ 부정의 상황과 그것의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자(莊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에는 각각의 도가 있고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제물(濟物)’의 경지와, 자신의 주관을 초월하여 각 사물의 고유한 본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아가는 ‘소요유(逍遙遊)’의 자세를 말했다. 장자에 따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법이나 도덕 규범, 사회 제도 등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 아울러 부귀나 명예 등의 외물을 좇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쳐 자신을 제약하게 된다. 그는 인위적 기준이나 외물에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보았다. 장자는 일체의 대립과 구별에서 벗어나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자기 자신마저도 잊고 살아간다. 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나)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아름드리 골짜기 메아리
 돌아움즉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쇠새도 울지 않아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뻐를 저리우는데
쪼다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네!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란다? 옷질 중이 여섯판에
중이 희구나 위에 있는 절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늪은 사나희의 남긴 내음새를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죄를 씻고 뒹다 사나이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속
홀로 우뚝한 모양
 겨울 한밤내-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란 『시경(詩經)』 ‘소아(小雅) 벌목(伐木)’ 편에 등장하는 구절로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쟁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는 상상에 머무를 따름이며, 현실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큰 나무에 기어오르는 다람쥐도 없고, 뻐뻐 우는 산새 또한 보이지 않는다. 짐승조차 이럴진대 사람이라면 그 적막함이 어느 정도일까. 그럼에도 시적 화자는 한밤중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 흰 빛을 발견해 내는데, 이 흰 빛이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인식과 결부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눈에 비치는 달빛은 “보름을 기달려 흰” 것이며, 동시에 이 골짜기를 ‘걷는’ 달의 고요한 움직임에 그 “흰 뜻”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한밤중 골짜기의 풍경과 이미지는, 시적 화자로 하여금 현재의 어둠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며 한밤의 고요를 견디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고결한 정신성으로 응축된다.

(다)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 자동차(乘合自動車)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라? 오관(五官)*이 모조리 박탈(剝奪)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속 가운데서 나는 이리 디굴 저리 디굴 구르고 싶을 만치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동공(瞳孔)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망쇄(忙殺)**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省察)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특질이요, 질환인 자의식(自意識) 과잉은 이런 권태치 않을 수 없는 권태 계급의 철저한 권태로 말미암음이다. 육체적 한산, 정신적 권태, 이것을 면할 수 없는 계급이 자의식 과잉의 절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울가에 앉은 나에게는 자의식 과잉조차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산한데, 이렇게 극도의 권태가 있는데 동공(瞳孔)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 아무 것도 생각하기 싫다. 어찌까지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즐거웠다. 그러나 오늘 그것조차 귀찮다. 그러면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 뜬 채 즐기로 하자. (-중략-)

(뒷면에 계속)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하고 있다. 돌맹이를 주워 온다. 여기는 사금파리도 벽돌 조각도 없다. 이 빠진 그릇을 여기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풀을 뜯어 온다. 풀 -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禁制)***니까 풀밖에 없다. 돌맹이로 풀을 짓찧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 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다른 돌맹이를 가져다가 똑 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십 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 본다. 십 분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중략-)

여북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아버지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아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별판은 왜 저렇게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조물주에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라. (-중략-)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 이 권태의 왜소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오 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들썩 일어나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어 놓았다. 아 -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 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아 -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오관(五官) :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를 이른다.

**망쇄(忙殺) :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몹시 바쁨.

***금제(禁制) :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통제함.

(라)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낀다고 말하곤 한다. 소통의 부재와 관계 맺기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기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와 개인주의 풍조가 낳은 병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유리(流離)된 채 홀로 남겨져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막막한 시간을 흘러보내기 위해 때로는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이 제공하는 자극들에 기꺼이 몸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데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독은 홀로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만족하는 정신적 여유이지만 외로움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공허이자 헤어 나올 길 없는 일종의 자기혐오에 가깝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가 고독의 상태라면, 홀로 있음에 대한 불안으로 내면이 황량하고 영혼이 텅 비어 폐마른 상태는 외로움이다. 그러니 삶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잃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또 자신을 비판하는 진정한 용기를 드러내기 위해 고독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회복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사유와도 이어져 있다.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타인의 시선이 부재하는 고독의 시간을 불안의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유가 무르익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가)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와 제시문 (다)의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대비 설명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아 -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라는 발화를 비판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지난 세기는 면역학적 시대였다. 즉 안과 박,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였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면역학적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냉전의 어휘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장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를 장악한 이러한 면역학적 장치의 본질 속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다.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면역 방어 대상은 타자성 자체이다. 아무런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도, 아무런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한다. 이들은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긍정성의 폭력은 ‘바이러스적’이지 않다.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단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과 같은 신경성 질환은 바이러스성 폭력과 같이 여전히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면역학적 도식을 따르는, 시스템에 적대적인 특이한 개별자나 이질성을 전제하는 개념으로는 정확히 기술할 수 없다. 신경성 폭력은 시스템에 이질적인 부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적인 폭력, 시스템에 내재하는 폭력이다. 우울증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나 소진증후군도 긍정성 과잉의 징후이다.

(나) 창의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근면과 성실로 무장한 노동으로 축적한 부의 성공시대는 가고, 고난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슬로건이 되었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란 표어가 내걸리고 ‘창의경영’을 내세우며 급기야는 ‘창조경제’란 말도 들린다. 학력과 연줄로 이어진 사회의 성공 매커니즘에 창의성이란 스펙을 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도 들리기 시작한다.

창의성이란 현재의 법칙과 질서와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하며,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또 다른 나 혹은 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실의 모순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사유와도 관계된다. 인류의 진보는 다양한 개인에 의해 발현된 창의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된 결과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창의성의 시대에 창의성은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상상력의 스펙트럼 중에서 자본에 의해 부와 성공의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획일화된 창의성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되는 형국이다. 노동의 종말이 시작되고 두뇌의 착취가 시작되는 순간, 지배 권력이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그것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자본을 재조직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소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적 자질로 강요되는 순간 창의성은 개인을 억압하기 시작할 것이며, 상상력은 자본의 그물망으로 포획될 것이다. 그 결과 창의성은 사회로부터 파편화된 개인을 효율성과 이윤을 앞세운 사회의 가치로 통합시키기 위한 가치로 전략할 것이다.

(다) 나는 해고되었다. 한 달 전에 이미 통지를 받았고 책상은 지난주에 정리되었다. 모든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깊어가는 가을보다 먼저 깊디깊이, 그래프로 떨어져 내리는 경기 탓이었다. 회사는 브랜드 네임을 좀 더 이국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이미지의 옷들을 생산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금속 광택이 나는 꽃핀을 꽂은 신세대들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대거 회사 문으로 입장했고 파마를 자주 해서 머리가 푸석해진 우리들은 반대편 문으로 이제 나가야 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감각을 생명으로 하는 이 바닥에서 사실 서른이면 구세대였고 우리는 이미 촉탁 디자이너라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해고가 아닌 촉탁 해지였다. 경리과에 가서 한 달에서 조금 모자라는 날짜가 적힌 지불명세서를 냈다. 상고를 갖 졸업한 듯이 보이는 머리가 기다란 소녀가 내게 지불할 지폐를 봉투에 넣고 동전을 세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으니 나는 십년에서 조금 모자란 날들을 이 회사에서 보낸 셈이었고 그런 지난날들이 그 소녀가 세는 동전 소리로 딸그랑딸그랑 마감되고 있었다. (...중략...)

(뒷면에 계속)

처음 입사하던 때의 설렘,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일의 뿌듯함,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주는 약간의 오만함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 소녀만한 나이 때, 나는 열렬하게 말하곤 했다.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월급봉투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속빈 껍질 같았다. 내 속에서 나를 나답게 해주던 모든 촉촉함 같은 것들이 창의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진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아무리 해외출장을 다니고 세계 유수의 패션잡지를 들여다보아도 유행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도록 정해져 있는 공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처럼 나는 언제나 숨이 찼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그만 뛰지. 공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렸어. 이제는 날개가 달린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만 멎어버린 기분이었다. 소녀가 동전까지 정확히 센 봉투를 내밀었다. 모든 끈이 떨어져나가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탈감이 휘익 나의 내부를 훑고 지나갔다.

(라) 역병은 흔히 정치·경제·사회·국제질서의 격변을 초래했다. 최초의 팬데믹(Pandemic)*으로 알려진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비잔틴 제국의 몰락을 재촉했고, 17세기 중국의 흑사병은 거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명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기도가 아닌 위생과 검역이 병을 물리치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신권은 하락하고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토양이 형성되었다. 인구의 반이 죽은 탓에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토지소유주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농노제 해체를 가속화하였고, 자본주의의 맹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역사적 위기가 반드시 진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위기는 진취적 가능성과 퇴행적 가능성 모두 내포한다. 가령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서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자본주의의 맹아를 낳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유럽에서는 영주들의 가혹한 억압이 성공하여 오히려 이때부터 농노제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경제발전이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팬데믹(Pandemic) :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마)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양인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 20일 싱가포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서 길을 걸던 싱가포르인 여성 두 명이 백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구두를 신은 발로 때렸다. 이런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퍼지면서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소매가 없는 점퍼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며 구두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한 시민의 제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덕에 다행히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한 여성은 “가해자들이 심한 욕을 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두렵다” 고 했다.

3-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00자±20자) [20점]

3-2. 제시문 (가)와 (라)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